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권혜경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요인은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밝히고, 그 요인들을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8명의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핵심문장을 추출한 뒤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 ‘자기개방과 대인관계능력’, ‘자기이해욕구와 통찰력’을 내담자의 강점으로 지각하였고,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지와 격려’, ‘강점을 직접 언급하여 강화하기’를 강점 활용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은 ‘성장동기’, ‘성공경험과 문제해결력’, ‘개인내적자원’, ‘대인관계능력’을 내담자 강점으로 지각하였고, 내담자 강점 활용 요인으로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거 성공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발견’, ‘강점 및 가능성 실현 중심의 소통’, ‘능동적인 강점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 강점, 강점활용, 개념도

[†] 교신저자 :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96, E-mail : ahalee@catholic.ac.kr

상담은 개인의 강점과 자산을 강조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Gelso & Woodhouse, 2003). 즉, 상담의 주요목표는 개인의 “강건한 근원(sturdy root)”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Gelso와 Fretz(1992)에 따르면, 상담은 예방적, 교육적, 발달적, 그리고 치료적 역할들과 관련이 있고, 상담전문가들이 집중하는 5가지 주제는 고유 성격들(intact personalities), 개인의 자산과 강점, 간결한 개입 방식,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적·직업적 개발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5가지 주제들 중 개인의 자산과 강점은 상담의 연구주제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성격과 그 외 다른 주제들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성격(Costa & McCrae, 1992; Eysenck & Eysenck, 1985; Little, Burt, & Perrett, 2006; McDonald, Bore, & Munro, 2008), 개입방식(Freedman & Enright, 1996; Safran & Muran, 2000; Safran, Muran, Samstag, & Winston, 2005; Sheldon & Lyubomirsky, 2006),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Bernieri & Rosenthal, 1991; Fitzsimons & Bargh, 2003), 교육적인 환경조건(Caprara, Barbaranelli, Pastorelli, Bandura, & Zimbardo, 2000; Wong, Wiest, & Cusick, 2002), 진로·직업 탐색(Feldman, 2003; Gati, Krausz, & Osipow, 1996) 등의 주제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데 반해, 강점은 상담의 연구 주제로 심도있게 고려되지 못했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강점을 비롯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적극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에서의 강점(strengths)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이것은 재능과 구별되는데 재

능은 좀 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데 반해, 강점은 변화 가능하며 최적의 기능과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다(Peterson, 2006).

상담 연구 주제로 내담자 강점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강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담에서 개발되는 강점들을 강조하는 연구들로 수행되어 왔다. 즉, 내담자의 강점은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고(Saleebey, 1992, 1996; Sue, Arrendondo, & McDavis, 1992),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와 더불어 강점을 파악해야 한다(Ponterotto & Casas, 1991; Saleebey, 1992, 1996; Smith, 1977, 1989; Wright & Fletcher, 1982)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에서 개발되는 강점으로 용기, 대인관계 기술, 합리성, 통찰, 낙관성, 솔직함, 인내심, 현실성,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관한 균형있는 시각 견지하기, 미래지향성, 목적 찾기 등이 확인되었고(Seligman, 1995),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강점을 평가하는 다차원적 평가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Cowger, 1997). 이렇듯 내담자 강점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담자의 강점과 그것을 상담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지각한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이고, 상담에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상담성과와 내담자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강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도록 하고, 자신의 강점을 더욱 잘 활용하여 성취 경험을 증가시키며(Black, 2001; Harter, 1998),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Gardner, 1997). 무엇보다도 강점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과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elso & Fretz, 2001; Gelso & Woodhouse, 2003; Harter, 1998; Lopez, 2008; Taylor et al., 2003). 또한 강점을 확인하고 활용했을 때 우울감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수준은 상승하였다(Black, 2001; Harter, 1998;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Govindji와 Linley(2007)는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때 스스로에 대해 더 좋게 느끼며 어떤 것을 더 잘 성취하게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며 강점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점활용은 주관적 활력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의 저하, 긍정정서에 영향을 주었으며(박부금, 이희경, 2012; 임영진, 2010; Govindji & Linley, 2007; Wood, Froh, & Geraghty, 2010), 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강점활용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Buckingham, 2007).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상담에서 강점의 인식과 활용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Seligman, 2002), 인간은 강점을 활용하고 개발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Ralph & Corrigan, 2005). 내담자의 강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들이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Desetta & Woolin, 2000; Rogers, 1961, 1964; Simon, 1990). 이희경(2008)은 상담에서의 변화란 내담자의 결함과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담자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담에서의 변화와 내담자 이해 태도는 상담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상담자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담자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의 복잡한 특성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자 과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담자의 이런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특성은 상담 경력에 영향을 받는다(Holloway & Wolleat, 1980; Jennings & Skovholt, 1999; Spengler & Strohmmer, 1994).

그동안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 차이는 주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진행된 연구들은 발달수준에 따른 인지적 유능성(손은정, 이혜성, 2002; 오효정, 오은정, 김봉환, 2012), 공감정확도(조수연, 권경인, 2011), 사례이해와 상담계획(심홍섭, 1998; 이윤주, 김계현, 2002), 그리고 개입의 정도(이선자, 최혜림, 2002)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내담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한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요인에 관한 것이었으며,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은 상담자들이 어떻게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하는지, 그리고 인식한 강점을 상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밝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사례를 통한 경험적 자료들이 초심상담자들이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볼 때, 내담자 강점인식과 활용방안을 심층적으로 탐

색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상담자는 전문성이 발달함에 따라 상담과정에서 의미있는 패턴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Chi, Glaser, & Farr, 1988). 외부의 의미있는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그 정보들의 특성들을 통합하여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Hinsley, Hayes, & Simon, 1978). 즉, 상담자의 전문성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깊이 있고 복잡해진 인지적 특성과 관련되는데(Goodyear, 1997; Lichrenberg, 1997),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숙련상담자는 내담자의 실제적 정보를 통합하고 대인관계적 과정을 인식하며 인지적 이해 기술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고(Hillerbrand, 1989), 좀 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Martin, Slemon, Hiebert, Hallberg, & Cummings, 1989). 그들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파악하여 다양한 준거로 사용하고, 내담자의 표현 이면에 깔려있는 욕구와 갈등을 파악하여 내담자의 긍정적 특성, 성공경험 등의 장점이나 문제·증상 등의 약점, 사회·심리적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손은정, 2001; 여혜경, 2001; Jennings & Skovholt, 1999; Martin et al., 1989). 또한, 상담자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과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써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정서적 수용성과 유연성의 증가로 나타나며,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믿고 기다려주고 견디어내는 힘이 더해져가는 것을 의미한다(Skovholt, 2005).

이렇듯, 상담자는 기법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닌 전문성과 인간적 성숙을 통한 총체적인 사람으로서 영향을 제공한다(이수림, 2008). 초

심상담자에서 숙련상담자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성찰을 통해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Neufelt, Karno, & Nelson, 1996; Ward & House, 1998), 그러기에 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숙련상담자는 초심상담자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에 집중하고 파악하는 등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각하는 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상담의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곤 한다(유성경, 심혜원, 2005; Skovholt & Jennings, 2004). 상담에서 초심상담자들이 겪는 어려움, 즉 높은 수행 불안과 너무 높은 기대수준(Skovholt & Ronnestad, 2003), 내담자의 비협조적인 반응과 불만 표현(김길문, 2003), 그 외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어려움(Briggs, 2005; Kottler, 2006; Skovholt, 2005; Williams, Judge, Hill, & Mary, 1997)은 그들의 보다 더 나은 상담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발달과정에서 축적된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초심상담자와 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상담자들은 숙련상담자들의 강점에 대한 관점을 알게 됨으로써 보다 깊은 내담자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인 발달에 관심을 가진 상담심리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긍정성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내담자의 강점을 주제로 삼아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강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의 강점인식과 활용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초심상담자가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 method*)(*Kane & Trochim, 2006*)은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만의 고유한 언어로 도출된 핵심문장들을 추출한 후 그들에게 다시 의미있는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탐색이 부족했던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Kane & Trochim, 2006*).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 8명(여자 8명)과 숙련상담자 8명(여자 6명, 남자 2명)인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의 기준은 상담

자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수림, 조성호, 2009; 이현아, 이수원, 1997*)을 참조로 초심상담자는 상담심리사 2급 이하 상담자, 숙련상담자는 상담심리사 1급 5년 이상 경력의 상담자로 구분하였다. 초심상담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나 사설상담소에 인턴과정에 있는 상담자들로 상담경력이 평균 1.6년(최소 1년~1년 반, $SD=.45$)이고, 평균 연령은 33.5세(최소 26세~최대 45세, $SD=6.65$)이며,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숙련상담자는 상담경력이 평균 17.7년(최소 8년~최대 30년, $SD=6.13$)이고, 평균 연령은 48.6세(최소 39세~최대 67세, $SD=9.96$)이며,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요인과 활용방안을 탐색하고 개념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Kane*과 *Trochim*(2006)이 제시한 개념도 방법에 근거하여 다음에 제시한 총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준비단계로,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연구 주제가 되는 초점 질문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2개의 초점질문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내담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발견한 내담자의 강점을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을 제 1저자가 직접 만나 약 40 분 동안의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상담에서 지각한 내담자의 강점과 강점활용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고,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된 면접내용에 대한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상담전공 교수 및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연구자 3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축어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진술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문들을 상담전공 교수와 연구자 3명이 각자 정리한 후 다시 모여 진술문들을 모으고, 공통되게 추출한 진술문과 그렇지 않은 진술문들을 구분한 후, 공통된 진술문은 우선 그대로 반영하고,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하였다. 진술문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 축어록을 바탕으로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토의과정을 통해 의미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한 개인의 시각만을 반영한 아이디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참여자 진술의 의도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적 내용을 가장 잘 내포할 수 있는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 진술문들은 중복의 감소, 문장의 의미 왜곡을 최소화한 명료화, 내용의 포괄성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종합·편집하였다. 또다시 중복의 감소와 지나친 문장 명료화로 인한 문장의 의미왜곡을 검토하기 위해 석사과정 연구자 3명, 박사과정 연구자 3명이 아이디어 진술문을 재작성하고 상담전공 교수의 피드백과 수정을 거쳐 또 다시 통합하여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을 편집하였다. 최종 진술문은 초심상담자의 경우 내담자 강점과 활용은 각각 48개와 39개, 숙련상담자의 경우 각각 61개와 56개로 정리되었다. 개념도를 적

용한 선행연구들의 전례를 참고하여 핵심문장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평정자간 일치도 계산과 같은 절차는 적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구조화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핵심문장들을 중심으로 분류카드를 제작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을 다시 만나서 구조화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자들 각자가 이해가 되는 범주로 카드를 분류하게 하였다. 또한 각 핵심문장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중요도 척도를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이다. 분석을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통해 지도(좌표) 상에 핵심문장들을 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빈번하게 같은 것끼리 묶인 핵심문장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Kane & Trochim, 2006). 다차원 척도법 분석에 사용되는 원자료는 1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문장을 분류한 결과이며, 같은 그룹으로 묶인 문장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문장들은 1로 코딩하여 총 16개의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16명의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유사성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을 제작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개념도 제작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GSM이며(Bedi, 2006), 이를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x, y 좌표 값이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된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도상에 위치한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개념도 분석에서 위계적 군집분석을 적용할 때 Ward 방법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

를 의미 있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므로(Kane & Trochim, 2006)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핵심문장들에 대한 평정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문장(의미단위)이 무엇인지 나타내었다. 이후 각 군집별로 구성된 단위에 새로운 의미의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결 과

강점요인과 활용방안의 핵심문장 수와 스트레스 값 및 범주의 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기초로 한 분석 결과 초심상담자들의 강점과 관련된 핵심문장들은 최종 48개로 정리되었고, 이 핵심문장들을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M=7.62$, $SD=2.88$)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강점활용과 관련된 핵심문장들은 최종 39개로 정리되었고, 이 핵심문장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M=4.75$, $SD=1.04$)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의 강점과 관련된 핵심문장들은 최종 61개로 정리되었고, 이 핵심문장들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M=7.57$, $SD=4.20$)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강점활용과 관련된 핵심문장들은 최종 56개로 정리되었고, 이 핵심문장들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M=6.57$, $SD=1.99$)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초보상담자들의 2차원 해법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¹⁾은 강점의 경우 .346

이었고, 강점활용 요인은 .269로 나타났다. 숙련상담자들의 스트레스 값은 강점의 경우 .311로, 그리고 강점활용 요인의 경우 .335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에서 .365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윤정, 김계현, 2007;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군집분석의 특성상 최종 범주 구분에 있어 연구자의 사전지식이나 연구 문제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도와 관련하여 범주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정의가 명확치 못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따라서 연구주제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Jackson & Trochim, 2002; Trochim,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범주의 수, 그리고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지도상의 진술문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해석하기에 적합한 범주의 수를 결정하였다. 첫 번째는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하여 얻은 2차원 x, y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얻은 덴드로그램으로 적절한 범주의 수(초심상담자의 경우 강점과 활용 모두 2~3개, 숙련상담자의 경우 2~4개)를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수(초심상담자의 경우 강점과 활용 각각 2~10개, 3~6개/ 숙련상담자의 경우 각각 4~15개, 4~10개) 이상을 선택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군집분석 결과 서로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범주들 간의 진술문들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해석하기에

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하는데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일치성이 높다.

1)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실제거리와 최적화된 거리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즉, 다차원척도분석에서 관찰대상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 공간에 적합도가 개선될 때

적합한 범주의 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좌표 상에 그려진 지도들의 위치와 상대적 거리, 그리고 좌표 값 등을 고려하여 상담전공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자 3인과 함께 토의를 하여 합의 과정을 통해 차원을 추론하였으며 각각 두 가지 분류기준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군집들과 추론된 두 개의 차원을 토대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 강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완성된 개념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요인에 대한 개념도

초심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에 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으로 추론하였고 총 3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개념도(그림 1)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론된 차원 1의 정적 방향은 상담장면에서 표현되는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적 방향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과 변화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원 1은 초심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할 때 무게를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상담상황’ 대 ‘개인요인’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추론된 차원 2의 경우, 정적 방향은 호소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찰 및 자기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고, 부적방향은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기능적인 측면과 지지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원 2는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할 때 초점을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주로 ‘인지적 요인’ 대 ‘관계 요인’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초심상담자들의 강점요인별 문장들의 중요도 평정결과, 각 군집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M=4.11), ‘자기개방과 대인관계능력’(M=4.00), 그리고 ‘자기이해욕구와 통찰력’(M=3.59)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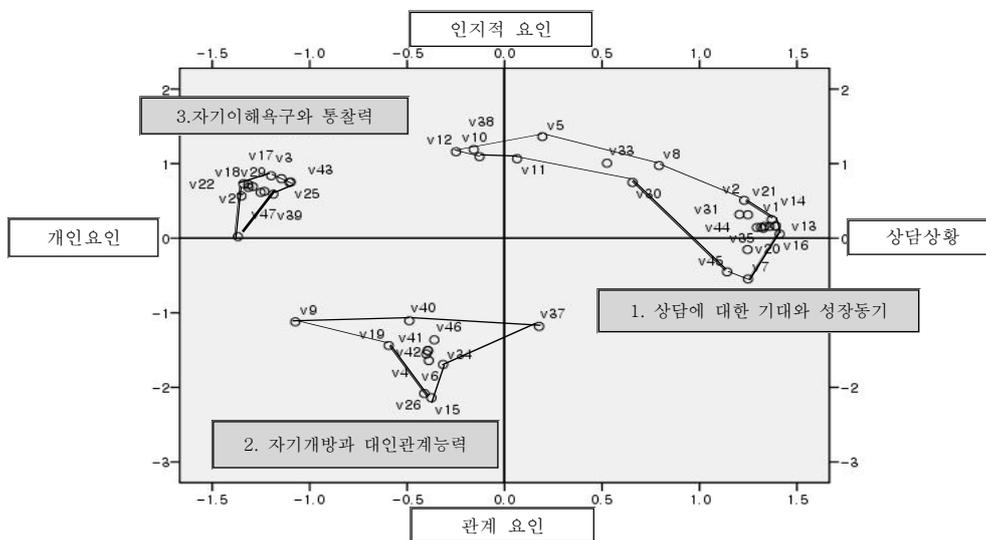


그림 1. 초심상담자의 강점 개념도

표 1. 초심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23문장, 중요도 평균=4.11)		
문항	문장	중요도
2	상담에서 당장 도움을 받는 것이 없다 해도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	4.63
21	변화하려는 의지	4.63
31	어떻게 해서든지 상담을 통해서 달라지고 싶어하는 마음	4.63
7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4.50
13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경험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찾으려는 것	4.50
44	갈등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	4.38
38	자신의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4.25
14	의지가 강한 것	4.13
20	문제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점	4.13
33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상담에 임하는 것	4.13
35	어렵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것	4.13
1	상담과정이 지지부진해도 매번 참여하는 끈기	4.00
5	상담자와 약속한 부분을 잊지 않고 해오는 성실성	4.00
12	한 인격체로서, 지금의 삶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내적인 힘	4.00
16	부정적인 느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해 희망을 갖는 것	4.00
30	상담에 대한 편견없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	4.00
8	상담에 대한 기대	3.88
23	회피하고 싶은, 회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3.88
28	상담을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3.88
36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것	3.88
45	상담을 통해 삶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두는 것	3.88
11	상담 시간을 잘 지키는 것	3.63
10	상담자 말을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것	3.38
군집 2: 자기개방과 대인관계능력(12문장, 중요도 평균=4.00)		
문항	문장	중요도
6	본인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표현하는 것	4.63
42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4.50
4	상담과 상담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4.38
37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4.38
40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수용하고 인식하는 것	4.38
46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	4.25
19	진솔하고 진지한 면	3.88
9	적극적으로 상담자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	3.75
41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3.75
34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3.63
15	친구, 가족과 같은 정서적 지지체계	3.38
26	가족들이 방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것	3.13

군집 3: 자기이해욕구와 통찰력(13문항, 중요도 평균=3.59)		
문항	문장	중요도
39	자기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	4.50
3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4.25
43	자기인식능력	4.25
17	스스로를 들여다보려는 노력	4.13
48	자신의 모습, 생각, 감정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통찰하려는 자세	4.13
18	현재 문제가 여러 환경이나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통찰력	3.88
27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3.63
32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리는 것	3.50
29	지적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것	3.25
22	자신감, 자존감과 관련된 지적인 능력	3.13
25	자기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닫기 위해 애쓰는 모습	3.00
24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학력	2.50
47	지적인 능력(IQ)	2.50

군집 1(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은 상담 상황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는 군집으로, 군집 2(자기개방과 대인관계능력)는 내담자의 자기보고와 관계경험의 탐색을 통해 개방적인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인 측면의 강점을 반영하는 군집으로, 군집 3(자기이해욕구와 통찰력)은 내담자가 자기이해를 위해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통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핵심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에 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으로 추론하였고 총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개념도(그림 2)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론된 차원 1의 정적 방향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적 방향은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을 바탕으로 확인된 유능하고 기능적인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원 1은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할

때 무게를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성장동기' 대 '실행력'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추론된 차원 2의 경우, 정적방향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처능력과 개인내적인 자원 및 긍정적인 측면들과 관련이 있고, 부적 방향은 내담자 본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원 2는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할 때 초점을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주로 '개인요인'대 '관계요인'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의 강점요인별 문항들의 중요도 평정결과, 각 군집은 '성장동기'(M=3.91), '성공경험과 문제해결력'(M=3.86), '개인내적자원'(M=3.66), '대인관계능력'(M=3.36)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성장동기)은 상담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의지를 발견하는 군집으로, 군집 2(성공경험과 문제해결능력)는 과거의 성공경험들과 과거탐색을 통해 드러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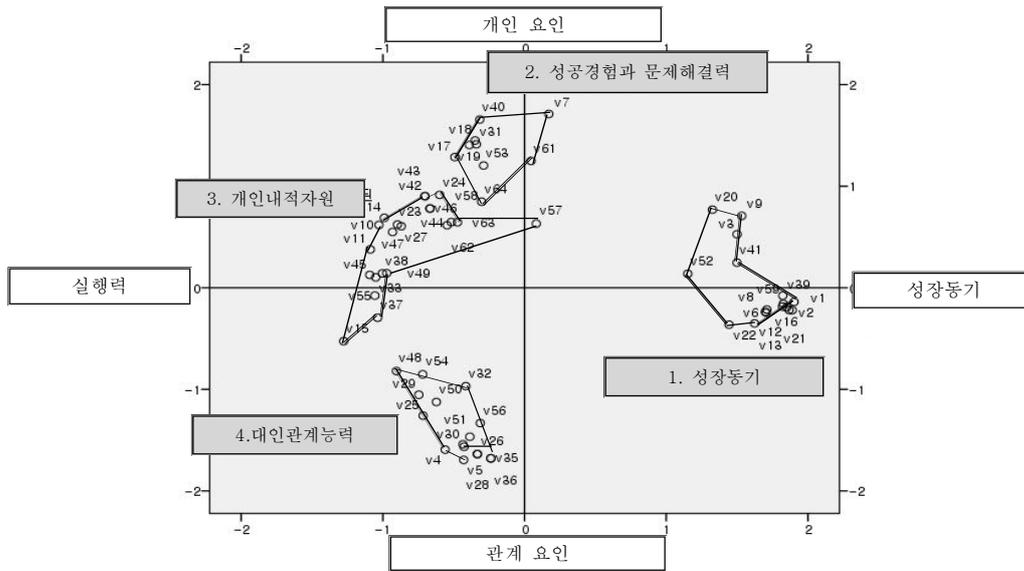


그림 2. 숙련상담자의 강점 개념도

표 2.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성장동기(16문장, 중요도 평균=3.91)		
문항	문장	중요도
2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	4.38
12	보다 더 나아지고 성장하려는 욕구	4.38
39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4.38
1	바람직한 변화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찾아온 것	4.25
59	용기를 내어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것	4.25
41	막막하고 불안하여 힘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노력과 끈기	4.13
3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것	3.88
9	상담이 지지부진해도 빠짐없이 오는 것	3.88
21	동기가 있고 자발적으로 상담실에 찾아온 점	3.88
60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	3.88
6	불평을 하지만 잘 해보고 싶은 의지	3.75
20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아지고자 지금까지 노력한 태도	3.75
16	현재의 문제, 고통,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욕구	3.68
22	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	3.63
13	배움에 대한 욕구	3.38
52	힘든 것을 수용하고 견디면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	3.13

군집 2: 성공경험과 문제해결력(12문항, 중요도 평균=3.86)		
문항	문장	중요도
43	과거의 성공, 성취경험들	4.25
61	칭찬받았던 경험들	4.25
64	앞으로 좋아져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	4.13
7	과거의 대처방식을 통해서 현재에 맞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4.00
40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유능감을 느꼈던 부분들	4.00
42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능감	4.00
19	문제와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순기능적인 부분들	3.88
53	내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발현되는 것	3.88
18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한 자원과 가능성	3.75
17	살아오면서 잘 기능했던 부분들	3.50
24	자신의 소질을 잘 발휘하는데 기반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좋은 성적, 운동능력 등)	3.50
31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가능성과의 근접성	3.13

군집 3: 개인내적자원(14문항, 중요도 평균=3.66)		
문항	문장	중요도
57	반추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점	4.25
62	내적 자원들(성격, 재능, 적성, 소질, 인간성)	4.13
10	뛰어난 사고능력, 이해능력	3.88
11	행동적인 실천력	3.88
55	자기 주장하는 힘	3.88
14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하는 것	3.75
27	성실성	3.75
38	섬세하고 부드럽고 강인한 성격 또는 추진력	3.63
44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3.63
23	대화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관찰능력	3.50
49	뛰어난 감수성	3.38
58	분별력	3.38
46	적성, 소질이 있는 것	3.13
47	지적인 능력	3.13

군집 4: 대인관계능력(19문항, 중요도 평균=3.36)		
문항	문장	중요도
25	대인관계 능력	4.25
26	힘들 때 조언을 구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대화상대가 있는 것	3.75
29	호감이 가는 것	3.75
28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	3.63

30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	3.63
37	인지, 정서, 행동의 조화, 나와 타인의 조화, 인간계와 자연계의 조화 등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균형이 잘 되고 조화가 잘 갖추어진 것	3.63
56	상황맥락 또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3.63
5	환경과 욕구 사이에서 자기수준을 파악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지점을 찾는 것	3.50
33	성장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적응적인 상식을 갖춘 것	3.50
15	표현을 잘 하는 것	3.38
4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3.25
35	내담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들을 잘 알고 있는 것	3.25
34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룰, 즉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미움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3.13
45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할 수 있는 것	3.13
48	배려심	3.13
36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여건	2.88
50	일반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키, 외모, 체격 등)	2.88
54	자신이 괴롭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을 하면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	2.88
51	남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점	2.75

잠재된 다양한 능력들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 해결 및 대처능력을 비롯해 순기능적인 부분들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강점이 반영된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3(개인내적자원)은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개인적인 자원과 더불어 자원을 활용한 경험을 강점으로 지각하였고, 군집 4(대인관계능력)는 관계를 형성하고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반영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핵심문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활용 요인에 대한 개념도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장면에서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으로 추론하였고 총 3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개념도(그림 3)를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서 강점을 강화하여 확장시키는 전략에 무게를 두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심상담자들은 강점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강점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추론된 차원 1은 그것의 전달 방식에 따라 ‘상담자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 대 ‘내담자가 발견토록 유도하는 방식’ 차원으로, 추론된 차원 2는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개입의 타깃을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인지적 개입’ 대 ‘정서적 개입’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초심상담자들의 강점활용 요인별 문장들의 중요도 평정결과, 각 군집은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M=3.88) ‘지지와 격려’(M=3.88), ‘강점을 직접 언급하여 강화하기’(M=3.42)로 분류되었다.

군집 1(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은 강점과 관련된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들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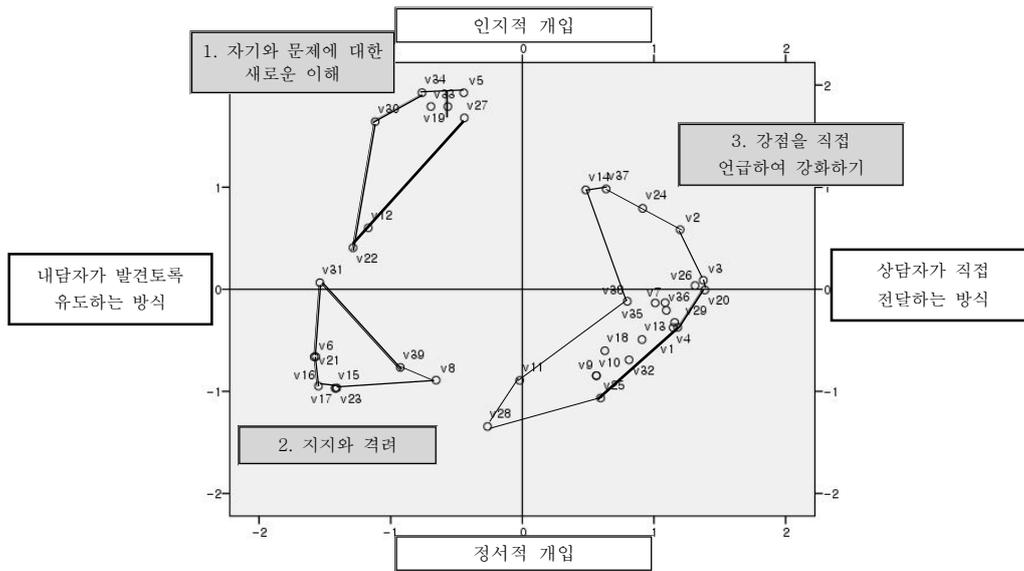


그림 3. 초심상담자의 강점활용 개념도

표 3. 초심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활용 요인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9문장, 중요도 평균=3.88)		
문항	문장	중요도
5	내담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점들을 지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4.38
30	내담자는 약점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나눠본다.	4.25
31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과 강점을 함께 발견해줘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준다.	4.13
34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시각으로 봐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3
27	상담자가 강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4.00
33	내담자가 가지고 있지만, 보지 않는 부분의 강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3.75
19	통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3.63
22	새로운 조망을 갖도록 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본다.	3.50
12	내담자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찾아본다.	3.13
군집 2: 지지와 격려(8문장, 중요도 평균=3.88)		
문항	문장	중요도
16	용기를 내고 한 행동을 강화한다.	4.50
17	성실성과 책임감을 칭찬한다.	4.25
6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상담을 통해 그런 신념들을 깨닫게 해준다.	4.13
8	강점 그 자체를 격려해준다.	3.88
15	지지해준다.	3.88
21	성실함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강점들(끈기, 인내 등)을 칭찬하고 지지해준다.	3.63
23	격려를 많이 해준다.	3.38
39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려준다.	3.38

군집 3: 강점을 직접 언급하여 강화하기(22문장, 중요도 평균=3.42)

문항	문장	중요도
35	미처 전달하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강점들도 찾아서 전달한다.	4.38
14	상담자가 발견한 강점에 대해서 피드백한다.	4.13
18	자부심을 느끼도록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의 강점이라고 상담자가 지각한 부분들을 진심을 담아 표현한다.	4.13
3	조언이나 방향제시를 할 때 이전에 발견했거나 언급했던 강점을 다시한번 언급하고 지지해준다.	4.00
9	“희망 불러일으키기”와 같이 첫 회기에 내담자에게 (의식적으로라도) 발견한 희망적인 부분들을 알려준다.	3.88
28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잘하는 점들을 짚어준다.	3.88
2	내담자의 삶이 파악이 되고 히스토리가 이해가 되면서 보여지는 강점들을 이야기한다.	3.50
4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해준다.	3.50
36	내담자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게 보일 때 강점을 사용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3.50
37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담자가 느낀 강점들을 언급하고 알려준다.	3.50
7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해결할 힘도 있다는 것을 전해준다.	3.38
13	강점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사용한다.	3.38
25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강점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준다.	3.38
26	강점을 부각시킨다.	3.38
38	평균이상으로 잘하는 부분들을 강조한다.	3.38
1	상담자가 본 강점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준다.	3.25
10	겉으로 보이는 강점들을 직접 표현해준다.	3.25
11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일수록 발견한 강점들을 부각시켜서 설명해주고 힘들어하는 상황과 연결시켜준다.	3.00
24	내담자 이야기를 분석해주고 비교해주면서 강점을 발견해준다.	2.88
20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점검한다.	2.75
29	상황에 적합하게 강점을 설명해준다.	2.50
32	매 회기마다 지속적으로 강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2.13

소문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개입하는 군집으로, 군집 2(지지와 격려)는 내담자의 강점을 촉진시키고 강화하는 정서적 개입을 반영하는 군집으로, 군집 3(강점을 직접 언급하여 강화하기)은 상담자가 인식한 내담자 강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개입을 강조하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핵심문장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숙련상담자들 상담장면에서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개념도는 2개의 차원으로 추론하였고 총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개념도(그림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련상담자들은 강점을 상담과정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고, 추론된 차원 1은 ‘내담자 강점을 활용할 때 무게를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강점 및 가능성 실현 중심’ 대 ‘호소문제 중심’ 차원으로, 추론된 차원 2는 ‘내담자 강점을 활용할 때 초점을 두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강점경험에 초점’ 대 ‘통합적 자기이해에 초점’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의 강점활용 요인별 문장들의 중요도 평정결과, 각 군집은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M=3.95), ‘과거성공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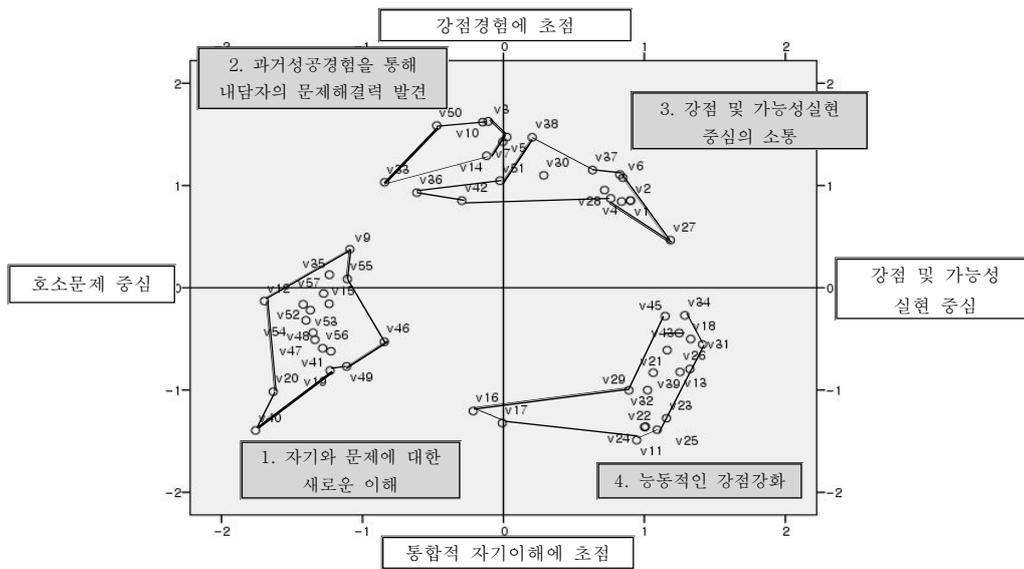


그림 4. 숙련상담자의 강점활용 개념도

표 4. 숙련전문가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활용 요인군집과 핵심문장

군집 1: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19문장, 중요도 평균=3.95)

문항	문장	중요도
35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 내담자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4.25
53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담자가 공헌한 것, 그래서 얻은 이득, 두 측면을 모두 살펴본다.	4.25
16	작은 변화를 포착해준다.	4.13
17	내담자의 동기를 알아준다.	4.13
48	삶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원을 발견하여 내담자가 지각한 문제에 함몰당하지 않도록 한다.	4.13
55	내담자가 살아왔을 인생을 탐색하면서 잘 기능했던 점들과 호소문제를 함께 바라본다.	4.13
12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조망을 제시한다.	4.00
46	문제와 자원을 같이 보도록 양쪽 측면의 기능을 알려준다.	4.00
47	내담자를 전체적으로 감지하려 하고 모니터하면서 내담자가 주는 수많은 단서들을 찾는다.	4.00
52	내담자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내담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4.00
15	내담자 문제를 섬세하게 보면서 호소하는 내용, 태도,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자원들을 발견해준다.	3.88
19	문제와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순기능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	3.88
41	호소하는 문제에서 강점의 요소들을 찾는다.	3.88
49	상담자 앞에서는 문제만 이야기하고 힘들어하지만, 다른 장소나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항상 염두에 둔다. 그리고 문제와 건강한 측면을 같이 본다.	3.88
54	문제와 단점들이 역경을 극복한 후에 새로운 기회로 경험되었던 상황을 탐색하고 깨닫게 한다.	3.88
57	문제가 계속 발견되듯이 자원도 계속 발견된다. 상담진행에서 초반에 발견한 부분들이 양적,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 확인한다.	3.88

9	불평 속에서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도록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다.	3.75
20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이면의 모습들을 알려준다.	3.50
40	문제의 정도에 따라 안심을 시켜주거나, 다른 강점을 활용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준다.	3.50

군집 2: 과거성공경험을 통한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발견(6문장, 중요도 평균=3.88)

문항	문장	중요도
5	과거에 못했던 부분을 수용해주고 힘든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하게 한다.	4.25
50	과거 성취경험을 통해 자신이 잘하고, 원하고,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을 찾는다.	4.00
7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것을 예전에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기억하게 한다.	3.88
3	성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해서 에너지를 얻게 한다.	3.75
33	문제가 되는 영역과 관련된 전성기를 탐색한다.	3.75
10	이전의 성공경험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3.63

군집 3: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의 소통(15문장, 중요도 평균=3.73)

문항	문장	중요도
8	본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현하도록 돕는다.	4.25
6	내담자가 좋아져서 자기 것을 다 발휘하고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염두하고 접근한다.	4.13
51	문제를 보면서 내담자가 문제상황 가운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를 함께 바라본다.	4.13
27	지금-여기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강점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확인한다.	4.00
28	재미있고 좋아했던 일들, 하고 싶었던 것들과 관련된 과제수행을 통해 유능감을 확인해준다.	3.88
2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75
14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켜본다.	3.75
4	좋은 점을 항상 염두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3.63
30	혼자서 추측하고 해석하는 강점들을 확인해보게 한다.	3.63
38	본인의 강점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3.63
1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맘껏 하게 한다.	3.50
36	총체적인 관점에서 현재 내담자의 어떤 면을 더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를 찾아내도록 한다.	3.50
37	문제는 있지만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3.50
44	내담자가 수행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도해보도록 한다.	3.50
42	내담자가 호소하는 단점이 타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도록 과제를 내준다.	3.13

군집 4: 능동적인 강점강화(16문장, 중요도 평균=3.67)

문항	문장	중요도
26	즐거웠던 경험을 충분히 나누고 내담자를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고 수용하게 해준다.	4.38
31	정서적 해소와 공감 및 수용을 통해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준다.	4.25
39	내담자를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강점을 바라본다.	4.13
45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담자의 오아시스 같은 부분들을 함께 찾아본다.	4.13
32	내담자의 수용여부를 떠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을 진정한 마음으로 찾고 알려준다.	4.00
22	상담자가 지각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상담자 느낌을 전달한다.	3.88

24	상담자 기준에서 평가한 강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3.88
11	상담자가 본 강점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직접 전달한다.	3.63
21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	3.63
43	내담자의 인간성, 성격, 인간적 자질, 능력 등을 인정해준다.	3.50
18	강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목한다.	3.38
13	저항에 부딪혀서 상담에서 발견한 강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심정을 충분히 받아준다.	3.25
29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주고 강점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5
34	자원을 늘려주고 문제를 줄여줘서 커진 자원이 작은 문제를 커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3.25
25	상담자가 느낀 내담자 강점을 전달해서 그 전달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확인한 후, 내담자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과 상담자가 언급한 강점의 관계성에 대해 나누고 강점을 강화한다.	3.13
23	강점들이 보다 잘 발현하도록 내담자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와 한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3.00

발견'(M=3.88),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의 소통'(M=3.73), '능동적인 강점강화'(M=3.67)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은 강점과 관련된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들과 호소문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접근하고 호소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도록 개입하는 군집으로, 군집 2(과거성공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발견)는 과거의 성공경험과 대처방식을 통해 내담자 호소문제와 관련된 문제해결능력과 잠재능력을 탐색하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3(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의 소통)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내담자 모습을 염두하고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고, 군집 4(능동적인 강점강화)는 상담자가 인식한 내담자 강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개입과 더불어 내담자가 강점을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핵심문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지각하는 내담자의 강점요인은 무엇 인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이 내담자에 대해 공통적 혹은 차별적인 강점 지각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개념도 분석 결과 상담자들이 지각한 내담자 강점요인과 강점활용 요인에 대한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차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간의 내담자 강점과 강점활용 요인에 대한 개념도는 핵심문장에서 양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내담자 강점요인과 활용요인에 대한 반응내용들을 보면, 초심상담자들은 숙련상담자들에 비해 핵심문장의 개수(강점요인 각각 48개, 61개 문장; 활용요인 각각 39개, 56개 문장)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내용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다. 양적인 차이는 개념도의 군집 수(초심상담자 강점, 활용 각각 3개, 숙련상담자 강점, 활용 각각 4개 군집)에도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의 전문성 발달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에 대한 질적 차이는 개념도 상의 차원과 군집, 각 진술문의 위치 및 중요도 평정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첫째,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강점을 지각할 때 ‘상담상황-개인요인’ 차원과 ‘인지적 요인-관계요인’의 2개의 차원으로 지각하였고, ‘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 ‘자기개방과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자기이해욕구와 통찰력’을 내담자의 강점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할 때, 내담자의 개인적인 노력,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성장동기와 더불어 표현력, 개방성, 수용성과 같은 자기이해와 상담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담자 특성들을 먼저 지각하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성장동기에 대해 많은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강점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핵심문장들의 표현과 맥락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인터뷰 과정의 어려움으로 호소하였고, 내담자 호소문제와 더불어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와 사례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강점을 지각할 때 관찰 가능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상담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고, 상담관계와 상담예후 촉진의 지표가 되는 특징들, 예를 들어, 의지가 강하고 성장이나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끈기와 성실성, 진솔하고 진지한 면, 자기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정서적 지지체계, 자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는 모습 등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내담자 강점으로 지각하였다.

그에 비해, 숙련상담자들은 ‘성장동기-실행력’ 차원과 ‘개인요인-관계요인’ 차원이라는 2개의 차원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관계요인’으로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초심상담자의 ‘인지적 요인-관계요인’과 유사하나, 숙련상담자들은 ‘변화동기-실행력’ 차원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담자 강점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한 내담자 강점은 ‘성장동기’, ‘성공경험과 문제해결력’, ‘개인내적자원’,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점은 내담자와 내담자의 이야기를 강점 중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숙련상담자들이 4개의 군집을 설명할 때,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전체 과정으로 각 군집들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즉, 내담자가 상담에 왔을 때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장동기를 높여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상담자는 문제중심의 탐색뿐만 아니라 강점중심의 탐색, 즉 좋았던 순간과 잘 기능했던 순간, 성공경험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동기가 증진되고 성장에 대한 의지가 생기면서 포기하고 싶어도 견뎌 보려는 끈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문제를 호소하고 부적응적인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담자는 호소문제뿐만 아니라 예외적 상황,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나 다른 상황에서 내담자가 잘 기능하는 모습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련상담자의 이런 신념과 특성들은 상담에서 의미있는 패턴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과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실천적 지식의 발달(Goodyear, 1997)을 보여주는 것이며, 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윤주, 김계현, 2002)를 지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숙련상담자들의 개념도에서 추론한 차원(성장동기-실행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숙련상담자는 보다 생산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현재 드러난 강점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담자의 실천적인 부분이 강조된 측면들을 내담자 강점으로 지각하였다. 실제로, 숙련상담자들은 인터뷰에서 변화동기에 대한 차원을 설명할 때, 내담자 수준과 준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차원에 해당하는 군집인 '성장동기'를 살펴보면, 핵심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핵심문장에서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삶이라고 해서 상담자가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개인적인 측면들이 과연 원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데 적합한지(개인요인 차원), 내담자의 환경과 주변 관계요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관계요인 차원)의 여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은 숙련상담자의 강점 차원 중 하나인 실행력 차원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지적인 능력의 한계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와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담자가 현실과 괴리가

큰 이상적인 방향을 원하고 있을 때 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의 몫이며, 내담자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방략들을 함께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상담자들이 내담자 강점을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원과 군집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자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내담자가 발견토록 유도하는 방식' 차원과 '인지적 개입-정서적 개입'이라는 2개의 차원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심상담자들은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지와 격려', 그리고 '강점을 직접 언급하여 강화하기'를 내담자의 강점활용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장면에서 지각한 내담자 강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로 강점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을 활용했고, 전반적으로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확장시켜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에 반해, 숙련상담자들은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호소문제 중심' 차원과 '강점경험에 초점-통합적 자기이해에 초점' 차원이라는 2개의 차원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군집을 살펴보면, '자기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거성공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발견',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의 소통', 그리고 '능동적인 강점강화'를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의 강점활용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숙련상담자들은 초심상담자와 유사하게 강점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호소문제 중심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내담자 강점을 강화하여 실현화할 수 있도록 내담자 강점 중심의 방법을 강구하였고.

내담자가 경험한 사건의 전후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재발견하여 내담자 자신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숙련상담자들은 현재 직면한 상황이나 호소문제와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하고 미래의 대처방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그들은 막연한 지지와 칭찬보다 현실적인 자기검토와 더불어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숙련상담자들의 활용요인들에 제시된 ‘강점 및 가능성실현 중심의 소통’과 ‘능동적인 강점강화’는 숙련상담자들이 보고한 내담자 강점요인 중 ‘성장동기’와 ‘실행력’ 차원에서 숙련상담자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강점활용 요인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숙련상담자들에게는 내담자의 강점중심의 경험과 통합적인 자기이해도 중요하데, 그것을 위해 그들은 내담자가 발견한 문제해결력을 실행해보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상담장면에서 지금-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능동적인 강점강화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은 더욱 강화되고, 호소문제로 인해 자각된 내담자의 취약한 측면들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내담자가 통합적 자기이해를 성취하도록 독려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의 강점을 군집화하여 각 군집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하고, 차원들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숙련상담자의 강점 인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자료를 통해 초심상담자들에게는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

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내담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심상담자들에게는 상담회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지식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고 상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김종범, 김창대, 2008; Hogan, 1964; Skovholt & Jennings, 2004)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심상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는 것은 초심상담자들의 상담수행능력과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촉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의 주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험적 연구로서 간과되어 왔던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강점 인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둘째,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내담자의 강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들의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초심상담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초심상담자들에게 다양한 상담경험과 경력을 가진 숙련상담자들의 실례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고 상담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담 전문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서 특정집단인 초심상담자들과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심도있게 탐색할 수 있었

으나 핵심문장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군집 내에 묶인 핵심문장들 중에 그 의미가 다른 핵심문장들도 함께 묶였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개념도 연구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6),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차원 척도 상에 위치한 강점 및 강점 활용 진술문들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각 범주 간 내용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범주를 독립적인 구인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진술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을 심리측정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어려움 역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 개념도 방법은 양적 분석 방법이 적용되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결과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려면 동일 주제의 양적 연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총 16명으로 비교적 적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무선 표집으로 대상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문화적 차이와 상담 접근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차원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축 분석을 통한 차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추론해 낸 결과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더 많은 대상의 연구 참여자를 선발함으로

써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길문 (2003). 초보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과정: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범, 김창대 (2008). 내담자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중요성 판단. 상담학연구, 9(4), 1431-1447.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 연구, 10(2), 769-792.
- 박부금, 이희경 (2012). 강점 활용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599-616.
- 손은정 (2001).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도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혜경 (2001). 전문상담자와 초심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가설형성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효정, 오은정, 김봉환 (2012). 상담자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유성경, 심혜원 (2005). 상담자 전문성 발달수

- 준에 따른 자기대화내용의 차이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 이선자, 최혜림 (2002).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 초보자와 숙련자의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16.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림, 조성호 (2009). 상담자 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69-91.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4(2), 257-272.
- 이현아, 이수원 (1997).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57-180.
- 임영진 (2010). 성격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연, 권경인 (2011). 초기상담에서 상담자 경력별 공감정확도와 상담만족도: 임상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57-275.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 연구 - 진로지 속 여성과 중단 여성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26-35.
- Bernieri, F., & Rosenthal, R. (1991). Coordinated movement in human interaction. In R. S. Feldman & B. Rime (Eds.), *Fundamentals of nonverbal behavior* (pp.401-43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ck, B. (2001). The road to recovery. *Gallup Management Journal*, 1(4), 10-12.
- Briggs, D. B. (2005). *Therapist stress career sustaining behavior, coping and the working alliance*. Ph. D. dis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Buckingham, M. (2007). *Go Put Your Strengths*. New York: Free Press.
-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Bandura, A., & Zimbardo, P. G. (2000). Prosocial foundat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Science*, 11(4), 302-306.
- Chi, M. T. H., Glaser, R., & Farr, M. J. (1988). *The nature of expertise*. Hillsdale, NJ: Erlbaum.
- Costa, P. T., & McCrae, R. R. (1992). *Manual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Ocale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wger, C. D. (1997). Assessment of client strengths. In D. Saleebey (Ed.),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pp.139-147). New York: Longman.
- Desetta, A., & Woolin, S. (Eds.). (2000). *The Struggle to be strong: True stories about youth overcoming tough times*. Minneapolis: Free Spirit Publishing Company.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Plenum Press.
- Feldman, D. C. (2003).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arly career indecision among

- young adul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499-531.
- Fitzsimons, G. M., & Bargh, J. A. (2003). Thinking of you: Nonconscious pursuit of interpersonal goals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partn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48-164.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983-992.
- Gardner, H. (1999). 비범성의 발견 [Extraordinary Minds]. (문용림 역). 서울: 해냄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elso, C. J., & Fretz, B. R. (1992). *Counseling psychology*.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Gelso, C. J., & Fretz, B. R. (2001).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Gelso, C. J., & Woodhouse, S. (2003). Toward a positive psychotherapy: Focus on human strength. In B. W. Walsh (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pp. 171-1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Goodyear, R. K. (1997). Psychological expertise and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An exploration of issu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3), 251-265.
-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use, self 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 143-153.
- Harter, J. K. (1998). *Gage Park High School research study*. Princeton, NJ: Th Gallup Organization.
- Hillerbrand, E. (1989).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 and novices: Implications fo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293-296.
- Hinsley, D. A., Hayes, J. R., & Simon, H. A. (1978). From words to equations: Meaning and representations in algebra problems. In P. A. Carpenter & M. A. Just (Eds.), *Cognitive process incomprehension*. Hillsdale, NJ: Erlbaum.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lloway, E. L., & Wolleat, P. L. (1980). Relationship of counselor conceptual level to clinical level to clinical hypothesis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39-545.
- Jackson, K. M., & Trochim, W. K.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 307-336.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ster therapists. *Psychology*, 46(1), 3-11.
- Kane, M., & Trochim, W. M. K. (2006). *Concept*

-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Kottler, J. A. (2006). 치료자의 자기분석과 성장을 위한 워크북 [*The therapist's workbook*]. (백용매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Lichrenberg, J. W. (1997). Expertise in counseling psychology: A concept in search of suppor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3), 221-238.
- Little, A. C., Burt, D. M., & Perrett, D. L. (2006). Associative mating for perceived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973-984.
- Lopez, S. J. (2008). The interface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positive psychology: Assessing and promoting strength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95-400.
- Mcdonald, C., Bore, M., & Munro, D. (2008). Values in action scale and the Big 5: An empirical indication of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787-799.
- Neufel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301-309.
- Park, N. 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nterotto, J. G., & Casas, J. M. (1991). *Handbook of racial/ethnic minority counseling research*.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Ralph, R. O., & Corrigan, P. W. (Eds.) (2005). *Recovery in mental illnes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mental welln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gers, C. R. (1964). Toward a modern approach to values: The valuing process in the mature pers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160-167.
- Safran, J. D., & Muran, J. C. (2000). *Negotia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A relational treatment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afran, J. D., Muran, J. C., Samstag, L. W., & Winston, A. (2005). Evaluating alliance-focused intervention for potential treatment failures: a feasibility study and descriptive analysis. *Personality*, 42(4), 512-531.
- Saleebey, D.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eligman, M. E. P. (1995).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The Consumer Reports study. *American Psychologist, 50*, 965-974.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3-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S.,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6). How to increase and sustain positive emotion: The effects of expressing gratitude and visualizing best possible selv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73-82.
- Simon, B. L. (1990). Rethinking empowerment.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1*(1), 27-40.
- Skovholt, T. M. (2005).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The resilient practitioner*]. (유성경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4). *Master therapist*. New York; Pearson.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45-58.
- Smith, E. J. (1977). Counseling Black individuals: Some stereotyp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5*, 390-396.
- Smith, E. J. (1989). Black racial identity development: Issues and concer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 277-288.
- Snyder, C. R., & Lopez, S. J. (Eds.). (2008). 긍정심리학 핸드북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이희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Spengler, P. M., & Strohmer, D. C. (1994). Clinical judgment biases: The moderating roles of counselor cognitive complexity counselor client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8-17.
- Sue, D. W., Arrendondo, P., & McDavis, R.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477-486.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65-176.
- Trochim, W.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Ward, C. C., & House, R. M.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1-23.
- Williams, E. N., Judge, A. B., Hill, C. E., & Mary, A. (1997). Experience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390-399.

- Wong, E. H., Wiest, D. J., & Cusick, I. B. (2002). Perceptions of autonomy support, parent attachment, competence and self-worth as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sixth and ninth-grade regular education students. *Adolescence*, 37(146), 255-266.
- Wood, A. M., Froh, J. J., & Geraghty, A. W. (2010). Gratitude and well-being: A 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90-905.
- Wright, B. A., & Fletcher, B. L. (1982). Uncovering hidden resources: A challenge in assessment. *Professional Psychology*, 13, 229-235.
- 원 고 접 수 일 : 2013. 05.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7. 16
게 재 결 정 일 : 2013. 07. 30

The Concept Map of Novice and Expert Counselors' Perceived Clients' Strengths and Applications

Hye-Kyung, Kwon

Hee-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was to explo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novice and expert counselors in perceiving clients' strengths through concept-mapping method. A total of eight novice and eight expert counselors were interviewed. In this study, the novice counselors reported for factors of clients' strengths were 'counseling to expectation and growth motivation',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nd 'needs for self-understanding and insight'. Also they told that clients' strength factors in application were 'new understanding of self and problem', 'support and encouragement' and 'strength enhancement suggesting strengths'. The expert counselors reported that clients' strengths were 'growth motivation', 'success experience and problem solving literacy', 'internal resour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whereas they said that clients' strength factors in application were 'new understanding of self and problem', 'finding of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past success experience', 'communication-centered strengths and actualization' and 'active expanding strengths'. This study ends wit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novice counselors, expert counselors, strength, application, concept-mapping